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 분석*

김기화¹ 양성은²

An Analysis on Childcare Teachers' Attitudes Towards Free Childcare for Infants*

Kim, Gihwa¹ Yang, Sungeun²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를 탐색하고, 이들의 보육신념을 분석하여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영아반 보육교사 26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취업 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양적 팽창과 함께 어머니들이 주양육자로서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공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영아기에 적합한 양육환경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영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양육 파트너십이 양질의 보육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제2의 어머니”로서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무상보육 시행 이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경험한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영아, 무상보육, 영아반 보육교사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제 1저자: 인하아동발달센터 연구원

²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E-mail: syang@inha.ac.kr)

I. 서론

저출산은 노동력의 부족 및 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이 맞벌이가족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육정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여성의 취업 증대 및 노동력 확보와 같은 국가성장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변화는 소위 “영아무상보육”의 전면적 실시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0-2세 무상보육을 법제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보육비용을 지원 받지 못함으로 전업주부의 영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도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0~2세)는 739,332명으로 전체 영아 대비 54.1%이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된 2012년도에는 영아(0~2세) 872,284명이 이용하여 전체 영아 대비 62.0%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서문희, 이혜민, 2014). 이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 과열 현상이 발생되자 정부는 2013년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어린이집에서 지원받는 보육료는 만 0세 40.6만원, 만 1세 35.7만원, 만 2세 29.5만원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15). 2013년도 기준으로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은 874,975명으로 나타나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효정 (2012)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가정양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모의 “양육할 권리”를 빼앗는 정책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에서는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통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고, 시설보육과의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황옥경, 2013).

한편, 어린이집 이용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어머니들의 양육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역할제한 등으로 취업모 보다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전업주부가 양육의 고립화로 불안과 양육부담을 느끼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영진, 전일주, 2014). 즉, 전업주부가 자녀양육을 혼자 감당하게 되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이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혜선 (2001)의 연구에서 종일반을 이용한 영유아는 반일반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고, 귀가 시간이 늦어질수록 귀가 욕구가 증가하여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시간 이용 시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고(김송이, 이혜숙, 2014), 전업주부 어머니들은 보육료의 전액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원하고 있었는데(장선화, 김은주, 2013), 이는 보육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어머니들의 가정양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주연 (2014)의 연구에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 영아 어머니들이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 느끼는 양육죄책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경우 교육의 목적보다 대리양육의 목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에 대한 담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보육의 당위성만이 부각되어 급속한 이용률의 상승을 가져온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 무상보육서비스가 갖는 문제점은 영아기에 적합한 양육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보육교사, 아동발달학자, 아동교육학자 등)의 아동발달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며, 영아보육의 질적 측면을 간과한 채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실제 영아보육 현장의 교사-영아 및 교사-부모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부재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보육에 기반한 영아돌봄과 관련된 쟁점들을 고려할 때, 영아보육 현장 전문가의 관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영아의 발달에 최적화된 돌봄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보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공보육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영아보육교사의 공보육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이들이 정의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최적의 영아발달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도출하였다.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본 연구는 보육제도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찬반 의견수렴이 아니라 기저에 있는 바람직한 영아 양육환경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신념과 전문가적 관점은 향후 개선될 영아무상보육 제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질적연구는 실무를 실행하는 사람과 그 실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해석,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상호반응 하는가, 어떻게 시각이 변화 하는가 등을 강조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관점을 반영하고,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정책의 개입에 있어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블랙박스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의 특성을 활용하여 영아무상보육 시행 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변화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보육교사 26명이다. 영아반 보육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은 영아무상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현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유아 전문가로서 보육교사들의 신념과 태도는 보육정책 형성 시 참고되어야 할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근무 유형은 민간 13명, 가정 7명, 국공립 5명, 공공형 1명, 법인 1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보육교사 중 기혼이 20명으로, 이 중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는 18명이고, 2명은 아직 자녀를 두지 않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미혼이다. 연구참여자 보육교사의 연령은 20대 2명, 30대 10명, 40대 14명이다. 학력은 고졸 1명, 전문대졸 17명, 대졸 8명이다.

연구참여자의 보육자격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1급 14명, 보육교사 2급 5명, 보육교사 1급과 유아교육 2급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경우가 5명, 보육교사 1급과 유아교육 1급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경우는 1명, 보육교사 2급과 유아교육 1급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참여자는 1명이다. 자격취득 기관은 4년제 대학교 4명, 전문대학 8명, 보육교사교육원 10명, 사이버대학 2명, 학점은행제 2명으로 나타났다. 보육경력으로는 1년 이상~3년 미만 4명, 3년 이상~5년 미만 6명, 5년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영아반 보육교사들의 평균 보육경력 은 6년 4개월이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로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번	연령	자격		보육경력	자격취득기관	근무시설 유형	담당아동 연령	결혼 여부	학력
		보육	유아교육						
1.	38	1급	2급	10년	전문대학	민간	만2세	기혼	전문대졸
2.	36	1급	-	6년	전문대학	민간	만2세	기혼	전문대졸
3.	43	1급	-	7년	보육교사교육원	민간	만1세	기혼	전문대졸
4.	43	1급	2급	9년	4년제 대학	민간	만1세	기혼	대졸
5.	27	1급	2급	1년	전문대학	국공립	만2세	미혼	전문대졸
6.	41	1급	-	9년	보육교사교육원	공공형	만2세	미혼	전문대졸
7.	44	1급	-	4년	사이버대학	가정	만0세	기혼	전문대졸
8.	36	1급	-	7년	보육교사교육원	가정	만3세	기혼	전문대졸
9.	38	1급	-	10년	보육교사교육원	민간	만2세	미혼	전문대졸
10.	38	1급	-	10년	전문대학	법인	만2세	기혼	전문대졸
11.	42	1급	-	8년	보육교사교육원	가정	만2세	기혼	고졸
12.	30	1급	-	10년	전문대학	국공립	만2세	미혼	대졸
13.	31	1급	-	7년	4년제대학	민간	만2세	기혼	대졸
14.	39	1급	-	3년	사이버대학	가정	만2세	미혼	전문대졸
15.	40	1급	-	6년	보육교사교육원	국공립	만0세	기혼	전문대졸

16.	40	2급	-	3년	보육교사교육원	가정	만1세	기혼	전문대졸
17.	43	2급	-	4년	보육교사교육원	가정	만0세	기혼	전문대졸
18.	42	2급	-	5년	보육교사교육원	민간	만0세	기혼	대졸
19.	39	2급	-	5년	학점은행제	민간	만0세	기혼	대졸
20.	42	1급	1급	5년	4년제대학	가정	만2세	기혼	대졸
21.	42	1급	-	9년	보육교사교육원	국공립	만0세	기혼	대졸
22.	42	1급	2급	7년	4년제 대학	민간	만2세	기혼	대졸
23.	41	1급	2급	3년	전문대학	민간	만2세	기혼	전문대졸
24.	33	1급	-	7년	전문대학	민간	만2세	기혼	전문대졸
25.	43	2급	1급	9년	학점은행제	민간	만1세	기혼	전문대졸
26.	26	2급	-	2년	전문대학	민간	만1세	미혼	전문대졸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의 근원에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Seidman, 2009).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총 3개월이다. 면접시간은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2시간 30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무지 보다는 주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질문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영아무상보육 시행 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셋째, 영아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이다. 면접 시 개방형 질문을 먼저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질문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접 전 연구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내용이 녹음되는 것과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고지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사된 면접자료를 반복해서 읽어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진술들에 집중하여 목록을 만들어 나갔다.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찾고, 공통되거나 예외적인 내용을 분류하는 과정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의미 단위’를 만들고 이를 공통된 주제로 범주화 시켜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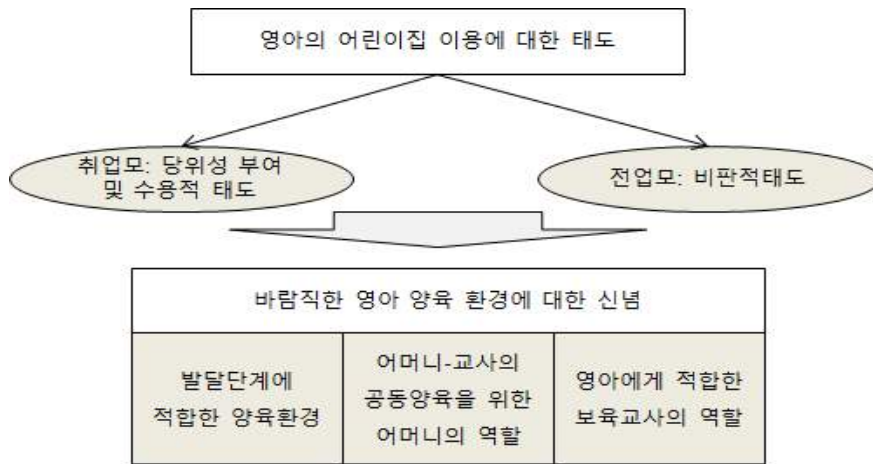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Creswell (2007)이 제안한 동료검토(peer materials), 부적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적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부적사례분석을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수정·보완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내용해석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참여자확인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균형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료분석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표 2>를 제시하였다.

<표 2> 자료분석 과정

원자료	의미단위 (단어,구)	주제목음	주제
		발달단계에 적합한 양육환경	
저희 같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랑 저희랑 함께 공유하고.. (#4)	같이 키우고 있는(#4)		
저는 하는데 가정에서 안하면 연계가 안 되기 때 문에 아이가 흐트러질 수 (#5)	연계(#5)		
몇 번을 말씀드려서 늦게 오시면 먹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여전히 식사를 안 하고 오더라고요. (#8)	여전히 식사를 안 하고(#8)		2. 바람직한 영아 양육환경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신념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교사한테 협조를 잘해주는 어머니 (#11)	교사한테 협조(#11)	어머니-교사의 일관되게 공동양육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	
엄마로서 좋은 모델이 되고, 교사로서 좋은 모델 이 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12)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12)		
기본생활습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영아이다 보 니까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 도 부탁하는데 어머니들 들으시고 “안 되네요” 이 런 반응들이 있어요. (#13)	도와 달라는 것도 부탁(#13)		
교사와 부모가 소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19)	교사와 부모가 소통(#19)		
가정과 원의 연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24)	가정과 원의 연계(#24)		
		영아에게 적합한 보육교사 역할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영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 및 영아의 발달에 최적합한 양육 환경에 대한 신념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재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26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고, 보육 전문가인 영아반 보육교사들의 경험과 신념을 근거로 영아보육 제도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림 1]로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그림1) 영아반 보육교사들의 영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태도 및 보육 신념

1.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 보육교사들이 영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영아기에 가장 적합한 주양육자는 어머니라는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신념은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상이한 태도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에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모라면 당연히 영아의 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1)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당위성 부여 및 수용적 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취업모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 영아기 자녀라도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대리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영아기에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생활을 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생계를 꼭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3)

전업주부가 아니라면 뭐 맡겨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9)

2) 전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비판적 태도

영아반 보육교사들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이유는 생애초기의 발달단계인 영아기 양육은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이 영아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해 경험한 부정적인 변화들은 보육교사들이 영아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업주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역할을 공적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녀 돌봄에 있어 어머니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당연한 역할은 간과되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더 많은 돌봄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돌봄 역할은 확대되고 강화된 반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역할과 책임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영아들은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잘 씻기고, 옷도 잘 갈아입혀 주고 이런 게 영아들은 눈에 잘 띄거든요. 어머니들이 청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요즘 안 그러시는 어머니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사들이 아침에 청결에 신경을 못 쓰는 친구들은 등원하자마자 머리로 묶어 주고, 씻겨주고 좀 신경을 쓰는데. 저희 교사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8)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원에서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현장학습 갈 때 뭐 얘기들 과자라도 싸 주시고 했는데 가방 안에 정말 도시락이랑 물만 이렇게 있어요. 교육가서 들었는데 “낳기만 하세요, 국가에서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14)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을 공보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무관심해지고, 준비물을 챙기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머니들이 공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념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로서의 양육책임을 최소한의 역할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양육자로서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보육교사를 자녀양육자의 주요 책임자로 바라보게 되는 어머니들의 시각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어머니가 스스로를 주양육자라고 인식하고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아무상보육 이후 오히려 너무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참여도가 적고.. 그러면서 아이를 맡겨 놓고 하염없이 준비물도 없고, 애가 아프든지 말든지 뭐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싸웠는지, 뭘 했는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일에만 급급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이 그냥 애를 마냥 봐주는 곳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개선되어야 할지.. 어린이집이 양육부담을 덜어 주는 곳이지 해주는 곳이 되면 안되는건데.. (#2)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무상보육 시행 후 변화된 점으로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토로하였다.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자 무상서비스 이용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들은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국가로부터 보

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어린이집에 재정적인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원하는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용자인 어머니 자신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제 어머님들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 너무 무상을 하다보니까. 그냥 너무 바라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그냥 제한을 좀 뒀으면 저러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 보내도 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보내시다 보니까 완전히 골라먹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22)

무상보육서비스는 이용자로서의 권리는 확대시키고, 수행해야 할 의무는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비협조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을 전문화된 보육기관이기 보다 국가차원의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수용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예전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은 되게 협조적이고 어머니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협조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들이 보여 졌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집도 이제 자기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게 더 많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요구를 안 들어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점점 내가 공짜로 아이를 맡기는 그런 기관, 그냥 봉사해주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진 거 같아요. (#12)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무상보육으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의 양적 수요가 증가되어 과잉보육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보육교사들은 무상보육 정책의 필요성을 수용하지만 시행 시기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보육료 지원 대상에 있어 저소득층 위주에서 점차적으로 차등지급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상보육정책 시행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경제적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급격하게 시행된 영아무상보육 정책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영아 자녀를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도 마음이 학기 초에는 정부에서 엄마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의 어느 정도는 좀 위안이 되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20만원 돈과 시간을 비례했을 때 엄마들한테는 아이를 여기다 보내는 부분이 더 이익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엄마들이 보내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11)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래도 돈이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은.. 사실은 어린이집에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무상보육이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23)

또한, 전업주부 어머니들의 어린이집 과잉 이용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모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영아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증가된 영아의 보육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역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보육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경제적 조건 같은 자격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고 자녀의 연령만 충족하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자리가 없어서 맞벌이 엄마들이 이렇게 찾으러 다니시고 그러는 거 보면.. 일반가정이 안 맡기면 그 분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15)

진짜 일하는 엄마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절실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내는 엄마들 때문에 진짜 절실한 사람이 못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21)

연구참여자 영아 보육교사들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선택에 있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영아’가 고려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장시간 맡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아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 단순히 경제적 비용만을 고려한 경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증가되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보육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영아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나라에서 일종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게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방향의 흐름인가? 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4)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모님이 지원을 받을 때 반일 반, 종일 반 조금씩 차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이 종일 반, 반일 반이고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해주니까 어머니들이 반일 반을 보내면 손해 보는 기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제 영아 같은 경우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잠깐씩만 보내면 아이도 즐겁고, 엄마가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애착형성도 잘될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반일 반을 보내면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생각하시고 종일반을 보내야지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반일 반이 없어요. 집에 계시면서도 종일반을 보내시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영아기 때 아이와 많이 보내시는 게 좋은데. 크면 시간(어린이집 이용)을 늘리면 될 것 같은데 0세 아이들도 그냥 네, 다섯 시까지 원하시고 아무튼 시간을 늘리시더라고요. (#8)

한편, 영아 보육교사들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기계발이나 여가활용이 가능해져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하였다. 어머니 혼자 24시간 영아를

돌보는 것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주양육자가 양육기술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인 보육교사와 일정시간을 보내는 것이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저변에는 영아에게 더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전 시간에 어머니들 취미활동 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 뭐 하세요?” 가끔 물어보면 “운동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그래요. 어머니도 개인 여가 생활 하는 동안 아이들은 여기서 적응하면서 있고, 하루 종일 어머니들도 아이들하고만 붙어 있다 보면 힘드신데 그럴 때 만나절만 여기에 있다 가면 아이들도 반가워하고 어머니들도 반갑게 맞고 피곤한 기색 없이.. (#9)

엄마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사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보다는 많이 아는 점.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점도 볼 수 있고.. (#16)

중요한 점은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영아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장시간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분리는 영아에게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애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생활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영아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최대 4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영아에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동안 어머니도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돌봄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짧은 시간 오더라도 더 즐겁게 놀이를 하고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내는 것 자체에는 고정적인 시각을 아니거든요. 단지 제가 걸리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인거예요. 너무 아이가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것, 너무 오랜 시간동안 다른 많은 아이들과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지 와서 잠깐 놀이하고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는 그런 거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이들 체력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상태가 아이들이 낮잠 자서 일어나는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점점 힘들어 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4시, 최대 4시간 정도까지 좋은 거 같아요. (#13)

2. 바람직한 영아 양육환경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신념

본 연구결과 바람직한 영아 양육환경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신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앞에 나타난 영아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첫째,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양육형태가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둘째, 어머니와 보육교사는 공동양육 수행자로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셋째, 영아반 보육교사는 “제2의 엄마”라는 보

육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발달단계에 적합한 양육환경

연구참여자 영아반 보육교사 대부분은 영아에게 가장 적합한 물리적 양육환경은 가정이고, 돌봄 제공자는 어머니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영아기는 발달 특성상 애착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고, 무엇보다 주양육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사표현이 서툴고 안전에 대한 인지능력이 형성되지 않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아보육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다수를 돌보기 때문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영아를 돌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소진되어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어머니 처럼 민감하게 영아를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하였다.

반면, 발달단계가 유아인 3세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유아기는 무엇보다 또래관계가 형성되고, 집단의 규칙을 학습하고,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집단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집 환경이 더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다.

아이가 이 연령에, 이 체력 정도라면 이 시간에는 집에서 조금 퐁퐁굴하면서..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예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예를 쓰지만 내 집 보다 편하지는 않을 거란 말 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본의 아니게 또래와의 갈등상황도 많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곳이 영아반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는 집에 가서 씻고 퐁퐁굴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13)

저는 영아기에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 충분한 애착을 갖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약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해보고 또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습득, 조금씩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영아기에는 엄마와 같이 사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험하는 단계고, 그리고 만 3세라고 칭한 이유는 유아기가 되어서 언어도 통하고 나도 표현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또래놀이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에는 아이가 이런 어린이집이라는 교육기관에 또래들과 같이 경험도 해보고 사회라는 경험도 해보고.. 초등과 연계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나이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만 3세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9)

연구참여자들이 표명한 가장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 시기에 관한 신념은 보육교사인 전문가로서의 신념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양육신념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보육교사들 대부분은 영아기의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저는 결혼해서 애기가 있으면 그러니깐 너무 애기 때는 좀 안스럽기도 하잖아요. 엄마 없이.. 우리가 아무리 잘 봐도 엄마랑은 다를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이가 몸 추스르고 자기 의사 표현하고 한 24개월까지는 내가 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보겠는데.. (#14)

제가 주부입장이라면 저는 24개월 까지는 집에서 양육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저희가 아무리 어머니들이 원하셔서 아이들의 양육을 정성스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정말 엄마처럼 하는 것은.. 일단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만큼은 하기 어렵거든요. 마음은 있지만요.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에서 1:1로 아이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서는 5명을 가지고 나누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집에서.. 영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해요. (#17)

2) 어머니-교사의 공동양육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

보육교사들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공동양육자’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영아의 경우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아의 상태에 대해 어머니와의 빈번하고 긴밀한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머니와 보육교사는 공동양육을 통해 영아의 발달과정을 공유하므로 효과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공동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공동양육자인 보육교사와 어머니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영아의 성공적인 발달은 보육교사 혼자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어머니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드러냈다.

저희가 같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랑 같이..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시는 것이니까.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을 어머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갖고 있으니까. 그 반응을 함께 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또 안 되면 속상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보내 주셔야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느낌. 물론 어머님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구요. (#4)

영아기에는 식사, 간식, 이유식 같은 식습관과, 배변훈련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일관된 양육제공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처음 형성되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어머니와 교사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어머님하고 조율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배변연습을 시작한다든지 이유식 끝나고 식사를 시작할 때 집에서 먹는 습관이랑 어린이집에서 먹는 습관이랑 시간이.. 시간차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9)

하지만,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들은 어머니와 양육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어머니들이 양육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교사로서의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한 연구참여자 영아 보육교사는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양육으로 보육 현장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자녀가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일관되지 않은 훈육이나 생활교육을 제공받은 경우 혼란스러움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저는 부모상담 할 때 작년에 처음에 느꼈을 때, 엄마들이 그냥 듣고만 가고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연계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걸 보고 속이 상했고,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종이에 다 적어서 드렸어요. 파란색 부분을 대처방안이라고..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어머니 이게 대처방안이에요”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 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 네 장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그냥 획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5)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애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어, 이진 하지 말라고 안했는데, 왜 여기 오면 그렇게 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사랑도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데. 그거를 또 엄마도 이거를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똑같이 연습이 되어야지. (#22)

3) 영아에게 적합한 보육교사의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반 보육교사로서 전문적 지식 보다 사랑이나 관심과 같은 정서적 보살핌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만큼 자신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교육자로서의 전문적 역량 보다 양육자로서 역할수행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영아보육이 교육적 차원 보다 안정된 돌봄이 중요하다는데 보육교사들과 어머니들의 의견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영아 보육교사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엄마”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하였다.

진짜 엄마처럼 제2의 엄마잖아요. (#7)

저는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요. (#26)

영아반 애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 되니까. 교사의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더 눈을, 3세부터 7세까지 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눈을 때면 안 되지만 영아반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도 더 강하고 또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더 강하잖아요. 이제 0세부터 애들은 모든 게 다 세상이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 손에 있어도 내가 뺏어야 되고, 심지어 친구 입으로 먹는 거 들어가는 것까지. 진짜 눈을 때면 안 되고, 정말 모든 아이들 다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대해야 되지만, 이 0,1,2세 만큼은 더 정말 이 아이를 이해하고, 진짜 모르는 애기가 엄마 떨어져서 여기 왔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 해주고, 정말 더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요 영아반은 더 특히.. (#12)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영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과 분위기로 조성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정서적 보살핌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애착형성이 이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하고 어머니와 같은 돌봄역할 수행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는 영아는 엄마처럼 정말 집처럼 편하고, 영아는 사실 배우고 인지하는 것보다 편하게 엄마처럼, 집처럼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먹는 것, 잘 보호해주는 것, 안전하게 또 아무튼 엄마 품에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18)

영아반은 진짜 계속 긴장해야 되고 정말.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 왜냐하면 엄마가 아니 다른 사람이랑 이 아이는 애정을 느끼면서 애착을 형성하고 집에서는 엄마가 엄마지만, 어린이집 오면 선생님들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기는 어린이집에 있을 때 담임인 내가 엄마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 때 그 아이 인성이 길러지는 거니까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잘해줘야 되요. 애가 진짜 눈치만 백단인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요. 많이 안아 주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좋은 인성 그니까 교사의 좋은 인성이 그 아이한테 가는 거니까 정말 잘해줘야 되요. (#4)

유치원에서 일할 때는 선생님이란 생각으로 교육을 했는데 영아반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지.. (#25)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주 안아주거나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며, 영아의 욕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 긴장감 같은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보는 만큼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제한점을 거듭 인정하고 있었다.

1세는 거의 3월에는 아이를 다 업어서 재웠어요. 저는 영아들은 안정감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 업으면 다른 아이들 놀이 하는 것도 봐줄 수가 있고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사 체력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영아반 같은 경우는 낮잠시간에 대화장 써야 되고 일지도 해야 되고 물론 아이들 자유선택 놀이하라고 하고 일지를 쓴다거나 그런 부분이 제일 부족하죠. 잠깐 눈 떴는 것도 불안해요. (#6)

현장에서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어머니의 역할과 유사한 돌봄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양육역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양육자는 어머니이며, 보육교사들은 일정 부분의 대리양육을 수행하여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부족한 양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공보육으로 자녀 양육기능이 사회화되어도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변화되거나 축소될 수 없으며,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녀양육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안아줄 수 있고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와 최대한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또 내가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가정 고유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들. 그게 어머니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10)

집에서는 엄마가 사랑을 주고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사랑을 줘야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가 됐으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를 위해서 더.. 아이 보다 자기의 행복이 우선이다. 조금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19)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무상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유아 전문가인 보육교사들이 주장하는 적합한 양육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보육의 핵심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보육교사들은 현장에서 갑자기 보육수요가 증가하는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사실 무상보육이란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 질차를 몰라서(#2), 문제는 이와 같이 무상보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무상보육 서비스 시행으로 발생할 결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보육정책 형성과정에서 주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욕구나 의견수렴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에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보육정책을 선택하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영유아의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서비스의 핵심 수혜자인 영유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무상보육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쟁점은 보육서비스의 대상자인 영아의 양육환경이 간과된 점이다. 영유아 전문가인 보육교사들은 영아기에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1:1로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육신념을 갖고 있었다. 생애최초의 발달단계인 영아기는 어느 시기보다 양육환경이 중요하고, 주양육자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과 신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재무, 송영선(2012)의 1~2세 영아들을 중심으로 행태 관찰을 통한 심리과약 연구에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부모로 오인하거나, 상위 반으로 진급 시 적응에 애를 먹는 행태를 포함해 불면증세, 어립이집 등원 거부, 투정, 반항, 가벼운 정서적 우울, 무기력, 일시적 식욕감퇴, 거짓 표현, 부모에 대한 과도한 애정 확인 등 전형적인 불리불안 증세(separation anxiety symptoms)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수경과 임지현 (2014)이 영유아 39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재원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영아 보육교사들이 영아기의 적합한 양육행태인 가정보육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보육신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선진화된 해외 보육의 방향은 여성에게 육아로 발생하는 경력단절과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동발달 측면에서 영아기에 어린이집에 맡겨지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로 발전되었다. 영아기 자녀는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비용지원의 설계 외에 노동시간의 단축 및 양육시간과 공간의 확보와 같은 사회문화 저변과 인프라에 대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김은설 외, 2014). 우리나라도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혼합 설계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있어 적정선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지원 정책이 부모의 양육선택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장수정, 2013). 어머니들 대부분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의 결정에 있어 아동을 고려하기보다 경제적 이득을 우선적으로 염두하고 있었다.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선화와 김은주(2013)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반면, 얻게 되는 이익(시간활용, 육아부담 해소 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가 30.1%, 많은 영향이 31.3%로 전체의 61.4%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박경자, 황옥경 그리고 문혁준 (2013)이 무상보육은 부모 분리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영아무상보육은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인 가정에서의 양육을 사회제도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자녀를 맡기는 보육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장시간 자녀를 맡기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양육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에 가장 적합한 양육행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과 가정양육수당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영아무상보육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취업모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가정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는 과잉보육으로 이어져 어린이집 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모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무상 지원 시간을 차등화하는 “차등보육”으로의 보육체계 개편 의지를 밝혔다(고은이, 2014). 무상보육이란 보편적 복지에서 또 다시 부분적 선별복지로의 체계 개편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취업모에게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업주부 어머니에게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의 부분적 대리양육이 가능한 설계로 개별 가정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육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보육 이용률은 OECD 국가의 평균 이용률 30%보다 훨씬 높은데(권미경, 도남희,

황성운, 2012), 2012년 12월 기준으로 보육을 받는 영아는 전체의 63%에 달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3). 문제는 양적확대 과정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은 더 취약했다는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는 어린이집, 나아가 공보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보육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단순한 보육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김진석, 2013). 한편, 어머니들이 무상보육을 이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어린이집을 영유아 전문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 국가차원의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공보육의 내실을 기하고 영유아 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영아 보육교사들은 효율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양육협조를 제시하였다. 무상보육 정책은 어린이집 이용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는 순기능도 나타났지만, 공보육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서문희와 이혜민 (2014)이 수행한 연구에서 영유아 전문가들은 무상보육 정책이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김사현, 주은선 그리고 홍경준 (2013)의 연구에서도 무상보육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모의 양육책임감 저하가 부각되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경우 보육교사와 어머니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이주연, 2014), 개별 영유아의 모든 사항에 대한 교사와 부모 양방향의 지속적인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문무경, Moss, Bennett, 하민경, 2013). 공보육의 의미는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과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이지만 국가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대신 맡아서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슬로건과 무상보육 정책이 맞물려 부모로서의 적극적인 양육책임은 간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대한 홍보 시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가장 적합한 양육을 제공을 위해 가정에서의 1차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가 영아 보육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무상보육과 관련된 영유아 전문가 및 어린이집 원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 등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은이 (2014. 12). 취업여부·소득별로 보육료 차등지원, 무상보육 4년 만에 대수술. **한국일보**, pp. A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1543821>에서 2015년 12월 30일 인출.
- 권미경, 도남희, 황성운 (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연구보고 2012-0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사현, 주은선, 홍경준 (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 서울

- 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2), 205-235.
- 김송이, 이혜숙 (2014).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2014 정책연구-02)**.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설, 이정림, 최윤경, 도남희, 문성혁, 이동하 (2014).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 요인 분석(연구보고 2014-3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석 (2013). 무상보육을 넘어 공공책임보육으로. **복지동향**, 181, 38-41.
- 문무경, Moss, Bennett, 하민경 (2013). **선진 육아정책 동향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3-2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경자, 황옥경, 문혁준 (2013).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513-538.
- 보건복지부 (2015). 보육정책. 서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3&topTitle=보육정책에서 2015년 12월 1일 인출.
- 서문희, 이혜민 (2014). **영유아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연구보고 2014-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원 (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연구보고 2013-1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수경, 임지현 (2014. 3). **영·유아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의 시각과 영·유아 스트레스 행동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이재무, 송영선 (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379~399.
- 이주연 (2014).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영향요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59-177.
- 장선화, 김은주 (2013). 무상보육정책으로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전업주부의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23(2), 91-111.
- 장수정 (2013).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담론에 대한 분석: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4), 33-59.
- 정효정 (2012). 가정 양육 기회가 박탈된 무상 보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459-472.
- 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25~49.
- 조혜선 (2001). 어린이집 영유아의 집에 가고 싶은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진, 전일주 (2014). 일본의 가족정책 관련 법제 연구: 자녀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405-432.
- 황옥경 (2013).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81-100.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housand Oaks, CA: Sage.
- Seidman, I.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박혜준, 이승연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06년).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attitudes of infant care teachers towards child care centers for infant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free child care services for infants, with regard to the teaching principles of said teachers.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6 infant care teachers. Most of the infant care teachers agreed that working mothers, but not stay-at-home mothers, should use child care centers. They also argued that, because child care for infants is free, (1) mothers have become more dependent on public child care, (2) mother's perception of child care centers has changed, and (3) people have exploited child 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teaching principles of these teachers, optimal childrearing for infants should involve the following: First, mothers themselves should take care of infants aged 0 to 2 years at home, when possible. Second, mothers using child care centers should form a childrearing partnership with the centers' teachers, and thus closely cooperate with them. Third, the role of infant care teachers should be understood as that of "the second mother." The highlight of this study is that it investigated the changes child care teachers have experienced as main providers of child care services for infant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free, universal infant care,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ing child care services.

■ **Key words** infant, free childcare, infant childcare teachers

논문투고	15.10.15
수정원고접수	15.12.15
최종게재결정	16.01.30